



2017년 3월 5일(제813호) 시순 제1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유혹? 불혹!”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을 참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 한 대도 지나지 않는 새벽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일 때에도 유혹에 빠집니다. 아무도 보는데도 없고, 지나가는 차량도 없고, 그런데 내 앞에 신호등은 빨간색을 띄고 있노라면, 신호등과 상관없이 핸들을 돌리고 페달을 밟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갑자기 등이 왜 이리도 간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만가지 생각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 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리도 피곤하고 나른한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나를 흔들여 놓는 일들과 내 마음을 흔뜨려 놓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마다 나 자신에게 적잖게 실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히브 4,14-16)

악의 세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도 중에, 유혹이 다가왔다면,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의 세력이 바라는 바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령 기도 중에 유혹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유혹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통해,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 유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이는 가난한 이에게 아낌없이 베푸는지, 가난한 이는 그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견뎌 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탈무드』



신기훈(그레고리오) 신부  
통해(해군 제1함대)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창세 2,7-9; 3,1-7  
**회 답 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2 특 시** 로마 5,12-19<또는 5,12.17-19>  
**복음 판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마태 4,1-11  
**영 성 제 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진리를 살다

교회 안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더불어 살아 가야 하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가치가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 신자들이 성찬례를 위하여 함께 모였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했다고 전하지만 실상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고 또 개인적 생활을 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의 서간에서 형제들 간의 분열과 미움, 이기주의에 대하여 한탄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요구사항」을 단호히 제시하십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순수한 형제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권력 다툼, 선입견과 미움, 내침과 편가름, 그리고 긴장과 갈등의 행위를 서슴없이 행합니다. 인간은 간교하고 악을 즐겨 하며 권력을 탐하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과 죄악은 인간을 하느님과 동료 인간들로부터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악을 제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함께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침을 공동 죄고백으로써 때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참회. <나> 양식)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묵묵부답하고 선행을 하지 않았고

## 참회

또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핍되어 있으며 온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 비유에서 부자의 잘못된 자기 집대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라자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멀리하고 그분과의 친교를 끊어 버렸으며 우리 스스로를 하느님 보호의 손길에서 피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또 단체로 크고 작은 일에 악의 세력에 물들었고 선을 도외시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죄와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복음과 행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파스카 신비 축제의 중심이며 우리를 하느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축제 안에 다시 오십니다. 미사전례 시작 때 우리가 행하는 죄고백은 전적인 회개의 표현이며 우리를 형제자매들로 하느님의 말씀과 성찬의 식탁의 일치로 이끌어 줍니다. 참회의 행위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밝혀 주고 정화시키며 참된 사랑을 위해 자신을 개방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참회에서 부당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 복 음 록 상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검데기

또 얼마를 깨야  
내가 보일까.

한 겹 한 겹  
부셔가는 시간 안에  
"모두가 벗겨져도  
양파 마냥  
아무것도 없으면..." 하는  
걱정도 하게 되지.

그래도,  
작은 희망안고  
한 겹 한 겹  
깨가는 마음.

상화이야기

기도하는 예로니모 성인



히에로니무스 보쉬(1550경 사망)  
1482년 작  
패널 위 유화 77 X 59 cm  
켄트 미술관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인으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 및 금욕적이고 청빈한 생활로 성직자들과 평신도에게 많은 귀감으로 칭송되던 성인입니다.

보쉬는 이 그림에서 은둔하면서 예수님의 수난을 목상하는 성인을 그렸는데, 보쉬 특유의 약간 기형적이면서도 신비한 배경 속 인적없는 곳에서 두 손을 모은 채로 십자가의 자세와 비슷한 자세로 기도하는 성인을 그렸다.

성인이 기거하는 곳은, 쓰러질 것만 같은 건물 더미로, 바로 옆에 있는 물웅덩이에는 예수님의 상처를 연상시키는, 틈이 벌어진 붉은 호박 같은 과일이 떠 있고, 성인의 발 쪽 나무 터기에는 성인의 붉은 겂옷과 책, 모자가 있다.

학자들은 이 그림이, 예수님의 수난을 모방함으로써 수난에 동참하는 정신을 잘 드러낸다고 분석하는데 우리 삶에서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순 제1주를 맞아 우리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수난에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어떻겠습니까?

김은혜(벨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사순 제1주일: 국군중앙 이효석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요한 성당 사목방문  
때: 3월 5일(주일)
- 군중후원회 사순일일피정  
때·곳: 3월 6일(월) 10:30, 서울대교구 압구정 성당
- 회의  
국장회의: 11:00, 참사회의 14:00, 사제평의회의 16:00

◆ 대례사회 피정

때: 3월 8일(수)-9일(목)  
곳: 서울 성북동 씨튼영성센터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 3월 9일(목) 18: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